50 감사의 글쓰기 (하나님 25, 교회15, 목장 10)

김유신

<하나님>

1.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중 처음으로 믿음을 가진 아버지를 통해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세워, 그 축복이 저에게도 내려져 왔음을 서른이 되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의 축복 주시어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라는 가훈 아래에 자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정직에 있어 엄격한 잣대 아래에서 자라나 가끔은 과한 솔직함으로 타인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었지만,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주관 아래 살아가는 삶에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키워주신 부모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3. **믿음의 가정을 이루길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성을 만나는 데 큰 이유가 아니었던 신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 간증하는 우리 가정을 보며 그리고 믿는 배우자를 만나 신앙을 키우는 교회 친구들을 보며 이제는 내게도 믿음이 가장 큰 조건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사는 것보다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믿음의 배우자를 소망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저 또한 자녀에게 물려줌으로써 믿음의 가문을 이뤄나갈 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4. **주를 함께 믿는 친구들을 가까이 함에 감사합니다.**
   깊은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친구들과 신앙의 나태함을 서로 가감없이 말할 수 있게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위해 서로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5.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간호사의 길을 가게 되어 가끔은 이 일이 나와 맞는가 고민하게 될 때도 있지만, 나의 건강한 움직임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하시고 이 일을 제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6.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삶으로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암 진단 후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저 하나님만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니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를 자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나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7.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간암 수술 진행과 입원하여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매일 감사가 고백 되어졌습니다. 매일 깨닫게 되는 은혜로 무사히 퇴원까지 마쳤지만, 전이 가능성이 짙어 시작되는 항암치료는 다시 제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 두려움마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염려는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8. **가족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여러 문제로 관계가 엉켜있던 저희 가족이 이번 일을 통하여 서로를 위하는 진심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서로를 위하는 기도로 손을 마주잡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친척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점차 관계 회복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친척들의 영혼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실 것을 믿으며 이를 미리 감사드립니다.

9.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처음 마주할 때면 이해하지 못할 일과 이로 인해 말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아파져 원망의 말만 내뱉던 날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 무엇보다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10. **타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마주하던 암환자가, 환자와 함께 수술실을 찾아오는 보호자가,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수술실 간호사인 저의 태도 변화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수술을 그저 쳐내야 하는 업무가 아닌, 환자의 두려움으로 보호자의 간절함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시작 전 환자의 이름을 부르며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수술에 임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11. **직장에서 청지기적 행실을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인 직장선배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직장이 나의 믿음을 실현해 나가는 또 다른 곳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게 행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다른 동료들에게 크리스천으로써의 다름을 보여주는 믿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12.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업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간호사는 교대근무로 일하기에 주일을 지키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하게 합격할 줄 알았던 자대병원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아 낙담하면서 다른 병원에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상근직으로 일하는 수술실 간호사로 보내주셨고, 이로 인해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13.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순종하는 종을 소망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흥미로운 일,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며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무력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종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14. **아침을 기도로 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는 그렇지 않은 날보다 감사함이 풍성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 매일 아침을 마주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15.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들이 너무나 예쁘게 느껴지는 날들입니다. 맑은 하늘과 여러 색으로 빛나는 산을 보며 기분 좋음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16.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로만 그치던 날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간구가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려 노력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위로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7.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이 생기고 이로 인해 피로가 쌓이면서 건강에 이상신호가 느껴져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한 말과 행동이 표현되길 소망합니다.
18. **설교 말씀을 듣고 결단력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여 주일 설교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려 하니, 오히려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 중에 나에게 주신 작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결단하여 내 삶에 적용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한 주를 살게 하는 원동력임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벽기도나 수요예배 시간에 주일 설교를 묵상하는 말씀 주시어 다시금 결단 내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19. **출퇴근길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이 있는 울산에서 직장이 있는 부산까지 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과 지인들은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차에 타고 시동을 걸기 전 기도를 먼저 함으로써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함께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20. **헌금을 구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함에 감사합니다.**
 직장을 가지고 일을 통해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을 관리하고 헌금을 준비하는 것은 오롯이 혼자만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주일헌금과 십일조를 지키는 것 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번 것이니 모두 내 것이라 생각하던 마음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10만이 아닌 나머지 9/10도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지출하기를 소망합니다.
21. **피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형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말 못할 속마음을 주고 받으며 의지가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육체적 그리고 영적 형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22.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치부를 내보이고 간절한 기도제목을 터놓으니 아픔을 내색하지 않던 주위 사람들 또한 각자 간절한 기도제목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가 더 간절하기를 소망합니다.
23.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기도의 열매는 내 믿음의 변화이지, 상황의 변화가 아님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주하는 상황에 좌절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상황이 아닌 나 자신을 변화시켜 그것을 뛰어 넘게 하셨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24. **사람이 아닌 주님을 찾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곁에 사람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껴 혼자 있기를 무서워하던 제가,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위로와 사랑은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조건 없이 한결같은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홀로 설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5. **추수감사주일 감사 나눔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감사한 날들을 뒤돌아보고 톺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합니다. 감사 나눔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하며, 또한 가정과 교회까지 감사의 행복이 전해져 더 큰 감사가 피어나길 소원합니다.

〈교회〉

1.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이곳에서 자라게 하심 감사합니다.**
   습관처럼 당연하게 해온 교회의 출석은 주일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할 주일성수로 실천하게 되었고,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들은 그 어떤 동화책보다 기억에 남으며, 평일에도 주일에도 만나던 파워틴 친구들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서로에게 신앙의 거울을 비추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2. **파워틴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주중에도 교회에 오는 날이 잦았던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에 있는 것이 어색함이 아닌 익숙한 날들로 채워졌습니다. 파워틴 친구들 그리고 필립박 전도사님과 함께했던 날들은 교회 바깥세상의 다른 날들보다 훨씬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3. **신앙에도 배움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감에도 제자리만 머무는 그리고 무뎌져만 가는 제 믿음에, 조금씩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만든 삶 공부를 만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4. **교회에서 〈감사 나눔의 기적〉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게 하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아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의 숙제를 통해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감사 나눔의 기적〉 특별새벽기도회는 말 그대로 제게 특별한 새벽이었습니다. 감사를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를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더 큰 감사로 커지는 은혜를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5.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장년들과 한 공동체에 지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알 수 없었던 장년들과 삶 공부를 함께함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믿는 사람으로써 애쓴 시간을 나누던 장년들의 모습은 제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려 노력하는 어른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6.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와 교회 건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광야 기간 중 기도원에서 모였던 날들과,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날들로 인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주를 경배할 수 있는 공동체와 자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7. **파송개척을 준비하고 이를 이루는 교회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되신 교회를 파송하여 개척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다운교회 다운 모습으로 행해질 개척과 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8. **뜻을 모아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요기도회 자리에서 아버지의 수술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를 통해 큰 위로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를 위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인 것이 얼마나 벅차고 감사한지요.
9. **운영과 재정을 투명하게 오픈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역자나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건강하게 교회 운영과 재정을 함께 일궈나가는 교회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10. **어려운 일에 당면하거나 나누고픈 일이 생길 때 연락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인이 증가하면서 목사님과 개인적인 교류가 힘들다고 생각되었지만, 목사님은 목자 목녀님을 통해 제게 일어난 일을 아시고 만나주시고 기도해주셨습니다. 작은 일

로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들어주시는 목사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11. **집과 가까운 거리에 교회가 위치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까지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상을 지내면서 지나가는 길에 교회가 보이고, 가깝게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든든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12. **큐티를 함께하는 교회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큐티를 통해 매일 주시는 말씀과 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삶에 적용하기 까지 한결 수월해져 감사합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새벽에 함께 나눌 때 더 큰 은혜를 느끼게 하심 감사합니다.
13.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보사역팀의 사진 사역을 위해 1부, 2부 예배를 모두 참석하여 교인들의 모든 얼굴을 마주함이 감사합니다. 사진기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내고 추억을 남기는 소중한 섬김의 자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년 사진 사역을 함께 섬겨줄 새로운 작가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14. **교회를 건축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의견 내고 이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여 건축 디자인을 고르는 것과, 허허벌판이었던 교회 부지에서 땅밟기의 시간, 가건물에서 보내던 크리스마스 예배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함께 만들어 왔기에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키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세워갈 날들을 기대합니다.
15. **세대통합을 이끌어 가는 교회에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서 귀한 기억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의 옆에서 부모님의 축복 아래 예배에 자리에 서기 까지, 무엇보다 가정이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대통합을 위해 힘쓰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장>

1.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고 마주하는 날들이 더해짐에 따라 목원들과 마음이 같아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너무 비슷해져 가끔은 목장에 사들고 오는 과일이나 간식이 겹칠 때 도 있지만, 늘 한마음으로 모이는 식구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2. **'너를 위해 기도해'라는 말의 무게와 그 값진 마음을 알 게 해준 목장 식구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제목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제목이 되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3. **목장의 귀함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너나들이' 목장이 갑자기 멈추게 되고 이로 목원들이 모이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목장의 존재를 위해서는 목자, 목녀, 목원들의 마음과 기도가 모아지고, 목장이 이뤄질 우리만의 장소가 필수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목장에 대한 그리움이 커짐으로 목장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4. **부목자를 경험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싱글장년으로만 구성된 목장이 세워지면서 부목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목자, 목녀의 삶을 꿈꿔본 적이 없는 제가 마주한 부목자는 감사함보다 불평이 많았습니다. 목자, 목녀님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목원들의 소중함 또한 절실해졌습니다. 부

목자로써 지낸 길지 않은 날들을 통해 얻게된 깨달음이 소중하고 또 감사합니다.

5. **초원모임을 통해 마주한 목자님, 목녀님 감사합니다.**
   목원으로만 지내왔던 제가 부목자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초원모임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 부목자는 느끼지 못하는 목자님과 목녀님의 고충을 알게 되었고, 목원들을 향한 그들의 짙은 애정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목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목자님과 목녀님의 진심을 알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6. **목장에 어린이 목원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린이 목원으로 인해 모임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케어가 필요하여 목자님과 목녀님이 번갈아 가며 목장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나눔이 더 큰 은혜가 되기도 하고 기도를 나누는 마음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어린이 목원들이 되길 소망하며, 나눔 중에 경청의 태도를 키워주실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7. **목원의 입교를 통해 감동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아세례를 받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믿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목원들 입교에 감사합니다.
8. **목녀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신앙문제, 연애문제, 가족문제 등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마저 나눌 수 있는 든든한 목녀님이 곁에 계심에 감사합니다. 목녀님과 목자님의 존재만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어 감사합니다. 저도 그들에게 든든함으로 기억되는 목원이 되길 노력하겠습니다.
9. **평신도세미나를 통해 목장을 방문하는 다른 교회 분들과 마주하는 기회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장을 방문하여 목장 모임을 함께 한 다른 교회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우리 목장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목장을 통해 그들에게 가정교회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10.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만나기를 힘쓰는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주하지 못했던 긴 날들 중, 우리들은 zoom을 통해서, 교회청소를 하면서, 인원을 남자/여자로 나누어, 소규모로으로 목자 목녀님의 집에 모여서, 개인적으로 목녀님과 1:1 통화를 통해, 목자 목녀님의 집이 아닌 목원의 집을 오픈해서 등등 결국 수많은 방법을 간구해 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목장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